

코스피 약세... 증시 발 빼는 투자자 예탁금·빚투 줄고, 반대매매 급증

금투협, 증시 주변자금 164.4조
지난달 대비 3.5조, 2.1% 줄어
연초부터 일평균 반대매매 증가
1월 46억, 2월 52억, 3월 63억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하는 등 국내 증시가 최근 일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증시 대기성 자금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실제 주식을 사고파는 금액뿐 아니라, 투자에 대비해 쌓아둔 자금도 줄어들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증시 주변 자금'은 164조 4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167조 9706억원)보다 3조 5000억원(2.1%)가량 줄어든 것이다. 증시 주변 자금이란, 주식 거래에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다.

증시 주변 자금엔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약 54조원), 증권사에 보유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인 '신용 거래 융자 잔액'(약 16조원) 등이 포함

된다. 통상 1~3개월 뒤 확정 이자를 받고 금융기관에 되팔 수 있는 조건으로 사는 '환매 조건부 채권'(약 93조원)도 주변 자금에 해당한다. 단기간에 현금 화할 수 있어 주식 거래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급등락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위험도가 높은 주식은 당분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올 상반기 7% 이상 떨어지는 등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투자 자금 뿐 아니라 '투자 대기용'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코스피 거래 대금은 총 213조원으로 한 달 전(244조원)보다 13%가량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87조원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증시 주변 자금도 줄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증시 약세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비관론과, 높은 금리 때문에 더 이상 '빚투(빚내서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매매에 대한 공포도 시장 참여를 꺼리게 한다. 증시가 급락한 지난 9

일 발생한 위탁매매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은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10일에도 125억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나왔다. 올해 들어 미수금 중 반대매매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중 반대매매 일평균 금액은 1월 45억 9687만원, 2월 52억 4682만원, 3월 62억 7303만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증권사가 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주가가 급락하면 담보의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 증권사는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주식을 처분한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시장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적절한 현금 비중 확보가 필요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차린 선거사무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재명, AI기업 방문 첫 행보 홍준표, 직 내려놓고 "출마"

국민의힘·민주당 대선주자 행보

제21대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분야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전 대표, 퓨리오사 AI 방문
"인공지능 투자 100조 시대 열 것
국가 시데이터 집적클러스터 조성"**

**홍준표 전 시장, 대선 출마 선언
"대선, 홍준표vs이재명 택일 선거"**

그는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다"며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AI 핵심 자산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AI 공약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기술 시연을 지켜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퓨리오사AI는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 중 한 곳으로, 올해 초 미국 메타와 매각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는 계속 뒤쳐지고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퓨리오사AI는 그렇지 않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 같다"며 "함께 현장을

확인해보고, 특히 공공 분야에서 어떤 것이 많이 필요한지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13일)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 안 된다"며 정치권이 합의해 용산을 벗어나 서울과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여의도 선거사무실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 앞에서 제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다른 지지체장들이 직을 내려놓지 않은 것과 달리, 홍 전 시장은 직까지 내려놓으며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다. 그의 출마선언식에는 박덕홍, 유상범, 김대식 국민의힘의원이 참석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 연장인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이나의 양자택일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라며 "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라고 부연했다.

홍 전 시장은 개헌을 착실히 추진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며 "거대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경륜과 관록으로 국가 정체성을 바로 잇고 미래 새시대를 여는 올바른 개헌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양원제·중선거구제 도입 등 개헌으로 개혁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국정철학과 비전으로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자유와 창의 경제' ▲핵 균형과 무장 평화 ▲생산성에 따르는 분배,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복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저는 이번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거대 야당의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았다. 이제 찬탄·반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티몬 새 주인 찾았다... 법원, 인수예정자에 '오아시스'

100% 신주인수방식... 116억 지급
퇴직금 등 총 65억 추가 변제하기로

서울회생법원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오아시스는 티몬의 새 소유주가 된다.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수가 본격화되면 오아시스는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116억원 규모의 인수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주 인수 방식은 기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티몬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해 지분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오아시스는 추가 운영자금



오아시스 기업 전경. /오아시스

으로 티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원도 추가로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오아시스는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도 회생 법원에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메프 사태의 핵심 주축이었던

티몬은,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로 지난해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약 2개월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은 내달 15일까지 오아시스의 인수합병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티몬 측 관리인은 오아시스의 인수합병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율은 약 0.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아시스마켓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몇 시간 사건 공소장에 박아넣어... 법리에 맞지 않아"

**민간인尹, 첫 정식 형사재판
검찰,尹에 '윤석열 피고인' 칭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재판 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공판 당일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거쳐 입정

하겠다고 요청했고,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교법은 이를 수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 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오지 낭독을 들었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뛰으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또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